

2-11-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에베소서 5:14-17

말씀제목: 깨어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을 받으라!(휴거, 대 환란, 재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신인 마귀는 사람들의 혼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후 4:4)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권면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엡 5:14)

잠자는 자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리들과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은 그리스도의 날(휴거의 날). 7년 대 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가기 전 그의 아들 목회자 디모테에게 이에 대해 마지막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휴거의 날)와 그의 왕국(천년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딤후 4:1-4)

하나님께서서는 오래 전부터 선지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상고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빛의 예언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다윗왕은 그의 평생 소원에 대하여 “나, 나는 의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라고 고백했습니다. 장차 그의 육신이 죽어 장사되어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다리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휴거되는 날을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미리 알고 예언했습니다:

“그가 위에서 보내시어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가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셨으니 이는 그들이 내게 너무 강하였음이라.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막았으나 주께서는 나의 의자가 되셨도다. 그가 또 나를 넓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이는 그가 나를 기뻐하셨음이라.”(시 18:16-19)

선지자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69 이레가 지나고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어느날 마지막 한 이레, 즉 칠 년 대환란이 오게 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단 9:27)

선지자 예레미야는 대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 30:7)

선지자 호세아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마침내 옛날 한편 강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주님을 부를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 자리로 돌아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으리라.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를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천년왕국)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호 5:14-6:2)

예수께서도 앞으로 대 환란이 오기 직전에 지상에 나타나게 될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대 환란)의 시작이니라.”(마 24:6-8)

또한 예수께서는 이 때에 휴거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멧들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마 24:38-42)

사도 바울은 휴거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 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 | 16-18)

또한 사도 바울은 휴거가 일어나기 전 교회가 배교할 것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 옮겨진 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오지 아니함이라....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살후 2:3,6)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의 날(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절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살전 5:2-4)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형제들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2030년까지 온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온 세상에 공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이 아닌 세 번이나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지속전이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정하고 17가지 어젠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재 확인하기 위하여 COP 28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참여했으며, 최근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2024년이 7년 뉴월드 오더(New World Order)의 첫번째 해로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30년까지 평안하고 안전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젠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막은 자가 옮겨지는 휴거의 날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요일 3:2-3)

아멘! 할렐루야!